

호시노재심 뉴스 200 후 2014년 1월 15일 발행



호시노(星野)씨가 그린 이번 달의 그림
『생명, 태어난다 -아키코(暁子)의 발걸음에 포개』



미 「애국자법」 이라고 싸우고, 석방을 쟁취한 인·스튜어트
(2014년 1월 1일 【고스에루】 연방 형무소병원앞)

발행 호시노씨를 되찾자! 전국재심연락회의

연락처 〒105-0004

도쿄도 미나토구 (港区) 신바시(新橋) 2-8-16 이시다(石田)빌딩 4층

2-8-16 Sinbashi, Minato-ku, tokyo, IshidaBldg4F

TEL 03-3591-8224 FAX 03-3591-8226

e-mail :qq8ucd9@dream.ocn.jp URL <http://fhoshino.u.cnet-ta.ne.jp/>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 해방에 2014 년 큰 비약을

2.9 시부야 대규모 데모에 총궐기하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작년의 감동적인 12.1 전국집회와 도심데모에 이어 큰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12 월 25 일에 열린 삼자협의 (변호단 재판관 검찰관의 절충) 에서 재심변호단이 강하게 요구해왔던 사진의 원판에 대해 토우쿄 (東京) 고등재판소의 개시권고를 쟁취했습니다.

「사진」은 유일한 「물증」입니다. 구타현장 근처에서 촬영된 호시노씨가 가지고 있던 「철과이프」에는 기동대원을 구타한 흔적이 없습니다. 이 사실에 경악한 재판소도 검찰관도 「손상된 것 같은 흔적이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 원본의 개시에 의해 반론의 여지가 없게 「구타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들이댈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13 년의 싸움의 전진이 재판소.검찰청을 몰아넣어 모든 증거개시.재심개시에 결정적인 돌파구를 열었습니다.

17 일에는 와쿠타 오사무 (和久田 修) 변호인이 입회인이 없는 접견을 실현했습니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에 의한 입회강요라는 위법.부당한 공격을 변호단.전국의 변호사 호시노투쟁이 하나가 되어 타파했습니다. 「한시간 이십분에 걸쳐 재심에 관한 이야기를 잘 나눴다」고 와쿠타 (和久田) 변호사는 승리감을 가지고 이야기 했습니다.

작년 호시노투쟁은 비약에 이은 비약을 쟁취해 커다란 전망을 열었습니다. 2014 년 노동자 인민의 거대한 운동을 만들어내 호시노씨를 되찾기 위해 총궐기하자.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의 발전을

호시노투쟁을 크게 비약시키기 위한 중심은 모든 증거개시 대운동입니다. 검찰관은 39 년 동안이나 강제로 투옥을 시키며 호시노씨 무죄의 증거를 아직까지 숨기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를 법정에서 끌어내는 것은 완전히 정의이며 모든 노동자 인민의 찬동을 얻을 수 있는 싸움입니다.

이미 284 명의 변호사를 비롯해 880 명의 찬동이 모이고 있습니다. 모든 증거개시를 요구하는 찬동과 서명을 전국에서 모으자. 직장에 거리에 학교에 서명용지를 들고 돌격하자. 12.6 국회앞을 정점으로 비밀보호법을 반대하는 노동자 인민의 분노가 분출했습니다.

아베 (安倍) 정권은 원전 재가동에서 수출 헤노코 (辺野古) 신기지 건설 공모죄의 제정 집단적 자위권에서 헌법 개악과 전쟁국가를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에게는 과로사.장시간 노동 총 비정규직화 임금 인하 해고의 자유라는 공격이 연발하고 있습니다. 살아갈 수조차 없는 현실에 더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청년노동자를 선두로 끓어 오르고 있습니다. 노동자인민의 격한 분노와 하나가 되어 함께 싸우며 호시노씨를 되찾는 힘을 키워 나가자.

호시노씨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자

올해 연하장을 발송할 때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는 「정해진 문장 외에는 써서는 안된다」라는 새로운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 이렇게 까지 비인간적일 수 있습니까.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는 지금도 자유로운 친구 면회를 인정하지 않고 편지를 먹칠하는 행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난로는 물론이며 탕과나 회로의 사용 조차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으로 부터 모이는 분노의 항의를 집중해 호시노씨의 권리와 건강을 지키자.

2월 9일 전국 노동조합 교류센터와 공동개최로 모든 증거개시.재심개시 호시노씨의 해방을 요구하는 제 1 파의 데모를 호시노씨들이 싸운 시부야 (渋谷) 에서 합니다. 전날인 8일에는 호시노씨해방 전국토론회를 실시합니다. 총력의 참가를 호소합니다.

린.스튜어트씨 석방!



1월 1일 미국의 린.스튜어트 변호사가 석방을 쟁취했습니다. 린은 변호사로서의 활동이 「테러에 대한 지원활동」에 해당한다고 하여 「애국자법」 위반으로 징역 10년이란 부당한 판결을 받아 텍사스주 코스웰의 연방메디컬센터에서 복역하고 있었습니다. 폐암이 전이되어 의사도 그녀의 여명은 12개월 이라고 말한 상태였습니다. 전세계에 구원운동이 전해져 그것에 호응해 「미국의 모든주 남극을 뺀 모든 대륙의 80개국에서 4만의 서명이 모였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호시노 재심연락회의에서도 서명을 보내 재일 미국대사관에 제기해 연대해서 싸웠습니다.

마츠카와 (松川) 재판이 파해친 권력범죄 숨겨져 있던 무죄의 증거



후쿠시마 (福島) 대학 명예교수.마츠카와 (松川) 자료실 이베

마사유키 (伊部 正之) 씨

12 월 20 일 히비야 (日比谷) 도서관에서 제 6 회 학습회가 개최되었습니다.

표제의 테마로 이베 마사유키 (伊部 正之) 씨에게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사회는 재심변호단의 후지타 죠우지 (藤田 城治) 변호사. 모두 스즈키 타츠오 (鈴木 達夫) 변호단장이 인사말로 마츠카와 (松川) 재판의 승리가 전후의 재판비판운동에 있어서 결정적인 의미를 가진 것 백만이 넘는 사람들과 맞어지기 위해 마츠카와 (松川) 투쟁에서 배우고 싶다는등을 제기했습니다. 이하는 이베 (伊部) 선생님의 강연 요지입니다.

토우시바 (東芝) 마츠카와 (松川) 공장 파업 당일 미명에 사건발생

1949 년 8 월 17 일 미명 토우호쿠혼센 (東北本線) 마츠카와 (松川) 역 근처에서 열차가 탈선 전복해 승무원 세명이 사망한 마츠카와 (松川) 사건이 발생했다. 당시의 국철은 십만명의 해고중이었다.

국철중에서 현장의 20% 관리부문의 30%를 삼개월 사이에 해고한다는 방침이었다.

정부는 민간기업에 주고 있었던 가격차 보급금을 정지하는 것으로 정리를 개시하고 있었다.

사건은 토우시바 (東芝) 마츠카와 (松川) 공장이 같은해 8 월 12 일에 330 명중 32 명의 해고를 통고하는 공격중에 조합이 8 월 17 일에 24 시간 파업을 하려고 하고 있던 날 미명에 일어났다.

국철노동조합 마츠카와 (松川) 지부의 세명 토우시바 (東芝) 마츠카와 (松川) 공장의 두명 함께 다섯명이 「실행범」 이라고 여겨졌다. 그러나 실제로 일어난 열차 전복 사고의 원인은 철로를 고의적으로 뺐던 것이었다. 다섯명으로는 도저히 할수 없다. 도구고 많이 필요하고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한 것은 전문가가 보면 명백하다.

탄압의 노림은 조합의 파괴

검찰측은 8 월 12 일부터 시작해서 16 일에 이르는 열한번의 차례적인 공모로 사건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국철의 조합에서 모의가 있었다는 날조를 위해 전 국철의 선로공이었던

아카마 카즈미 (赤間 勝美) 씨가 노려졌다. 검찰관은 미성년인 아카마 (赤間) 씨를 연일

장시간의 가혹한 취조로 협박해 거짓 정보로 유도해 허위자백 (아키마 (赤間) 자백) 을 만들어 냈다. 검찰은 「모의」의 참가자를 토우시바 (東芝) 측에도 만들고 싶었다. 그래서 아카마 (赤間) 자백을 근거로 토우시바 (東芝) 의 하마사키 후타오 (浜崎 二雄) 씨를 잡아서 토우시바측의 체포를 어떻게 구성할까 연구했다. 실로 난폭한 일입니다. 이 취조에서 조합의 부위원장인 오오타 쇼우지 (太田 省次) 씨가 체포되어 공모행위의 대부분은 토우시바의 조합원으로부터 만들어졌다. 국철노동조합 후쿠시마 (福島) 의 중심에 있는 스즈키 마코토 (鈴木 信) 씨가 노려졌지만 그것은 국철노동조합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권력은 관공노동조합의 투입 국철노동조합과 민간의 전투적 노조인 토오시바 노조를 부수려고 한 것입니다.

피고단의 단결이 승리의 근원적힘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이를 수행하기 위해 반 공산주의의 노동조합인 총평이 점령군의 개선책으로서 만들어졌다. 그러나 총평은 현장의 노동자들의 저항으로 금방 「매어진 쇠사슬을 끊고 우리에서 나와」 전투적인 노조로 전환한다. 이 전환은 마즈카와 (松川) 운동이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피고인 20명의 단결은 마지막까지 지켜졌으나 거기에 마즈카와 (松川) 재판투쟁 승리의 근원적인 힘이있다. 이 단결을 기초로한 마즈카와 (松川) 운동은 총평마저 운동의 중심에 끌어들여 전인민적인 운동으로 발전했다. 마즈카와 (松川) 사건에서는 사건 이틀전의 모의에 참가했다고 하는 토우시바 (東芝) 의 사토우 하지메 (佐藤 一) 씨의 알리바이를 가르키는 스와 (諏訪) 메모가 검찰관에 의해 숨겨져 있었다. 재판승리의 지레가 된 중요한 증거인 것이다. 운동의 힘이 이존재를 찾아내 법정에서 끌어냈다 마즈카와 (松川) 운동은 피고.변호단.가족.지원의 끈기있는 싸움을 기초로 노동조합을 중심으로한 국민적 대운동으로 발전한 것으로 의해 사형 다섯명을 포함한 피고 20명 전원이 유죄의 1심판결을 반복해 1963년 9월 12일 전원 무죄를 확정지었다.

12월 17일 와쿠타 오사무 (和久田 修) 변호인

입회인 없이 하는 접견을 쟁취했다

12월 17일 와쿠타 오사무 (和久田 修) 변호인은 입회인 없이 호시노 후미아키 (星野 文昭) 씨와 한시간 20분에 이르는 접견을 쟁취했습니다. 9.8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데모의 다음날 접견하러 간 와쿠타 (和久田) 변호인에 대해 「입회인이 없는 접견은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공격을 가해 왔습니다만 이것을 타파한 대승리입니다. 접견에 입회인을 붙인다는 공격은 데모에 경악한 형무소가 호시노씨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을 빼앗고 재심투쟁의 파괴를 노린 용서할 수 없는 공격이었습니다. 와쿠타 (和久田) 변호인은 입회인이 동석하는 접견을 단호하게 거부해 어쩔 수 없이 호시노씨를 만나지 않고 돌아왔습니다.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의 공격에 변호단은 전국의 변호사에게 호소해 136명의 찬동을 얻어 연명으로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에 「항의성명」을 보냈습니다. 또한 와쿠타 (和久田) 변호인은 소속하는 토우쿄우 (東京) 변호사회의 인권옹호 위원회에 인권침해 구제 신청을 했습니다.

이러한 변호단의 싸움과 하나로 12.1 전국집회와 도심데모를 680명에서 쟁취해 분노를 국가권력에게 표시했습니다. 이러한 싸움이 쟁취한 승리입니다. 이번의 접견에서는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가 전번과는 전혀 다르게 저두평신하며 대응했다고 합니다.

「사람의 괴로움을 공유한다는 것이 나의 원점」



호시노 아키코 (星野 暁子)

12월 11일 차가운 바람이 부는날이다. 드디어 추위와의 싸움이 시작 되었겠다고 생각하며 형무소를 향했다. 후미아키는 건강했다. 「편지로도 썼지만 『사람과 혁명』이 읽혀짐으로 인해 후미아키=아키코투쟁이 모두의 안에서 주체화 된것이야. 정말 한사람 한사람의 발언이 너무 좋았어」라고 내가 후미아키에게 말했더니 후미아키는 「나도 여기까지 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못했어. 모두 정말 잘해줬어」.

「큐우슈 (九州) 이와테 (岩手) 사가미하라 (相模原) 의 회화전.집회도 좋았어. 사가미하라 (相模原) 에서 들었는데 눈물을 흘리며 그림을 보는 사람이 있었다고 들었어」라고 말했더니 후미아키가 구체적으로 알고 싶어 하길래 들은 것을 전부 전했다.

「후미아키와 같이 사는 것을 선택함으로 인해 나도 고립해서 고립중에도 어떻게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어필이 많았지만 지금은 후미아키와 함께 살아온 27년을 모두의 삶의 터전으로서 같이 만들어 가자고 하는 톤이 되었다」라고 나는 말했다. 후미아키는 「그것은 나에게 있어서도 기쁜 것이다. 착실하게 싸워온 것이 꽃을 피운 것이다」라고 말했다.

12월 12일 야마카와 (山川) 씨가 가져온 남천축의 열매를 후미아키에게 보여줬다.

유자도 보여줄까 생각했지만 먹는 것은 안된다고 접수처에서 들었다. 집으로 가져갈던 그림 『슬픔을 극복해 마음에 희망의 배를 띄운다』라는 그림을 보며 이야기했다. 『데이즈 재팬』의 사진을 보고 그랬다고 한다 서아시아의 소녀의 그림이었다. 뒤에는 전화로 불타고 있는 집들이 늘어서 있고 하늘에 희망의 배가 떠있다. 후미아키의 바람이 그대로 그림이 되었다.

12.1 집회에서 있었던 츠지카와 (辻川) 씨의 이야기가 화제가 되었다. 「국철투쟁은 하나인 호시노를 탈환하는것으로 자기를 관철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후미아키는 「츠지카와 (辻川) 씨가 그렇게까지 말했겠다」고 감사를 표했다.

그리고 「나카소네 (中曽根) 가 전후 총결산이라 칭하며 분할.민영화와 호시노 무기징역을 가해온 것에 대해 싸움으로서 없애지 못했다. 현재도 비밀보호법 개헌공격으로 소리조차 내지 못하게 하려고 있는 것에 대해 부서지지 않고 남아있는 것이 크다. 70년을 인계해 발전해 온 싸움이 있는 것으로 의해 연일 만이란 규모로 노동자 민중이 싸우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아베 (安倍) 가 하고 있는것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 국민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에 노동자 민중은 눈치채고 있다. 비밀보호법의 시행까지 앞으로 1년 아베 (安倍) 의 지지율은 더 내려갈 것이다」 라고 말했다.

12월 13일 삼일제의 면회는 교육처우일이라 쉬는날 이었다. 올해 마지막 면회였다. 두번째의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 포위투쟁을 하고 두번의 전국집회를 하고 책을 출판했다. 재팬.타임즈에도 크게 보도되었다. 「비약의 한해였어」 라고 서로 말했다. 몸상태를 물었더니 「상태가 좋아. 감기도 이제 나아서 면역도 있고 인플루엔자의 예방주사도 맞고 있어서 말이야」 라는 후미아키. 중학교 시절 학생회에서 같이 활동했었던 OM 씨로부터 편지를 받았으며 기쁘듯이 이야기해줬다. 학생회에서 함께한 친구도 달력을 사줬다고 한다. 「우리들이 포기하지 않고 착실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 길을 열고 있다」 고 후미아키는 말했다.

스즈키 (鈴木) 콘크리트공업 분회의 요시모토 (吉本) 씨가

「사람의 괴로움을 공유하는 것이 노동조합이야」 라고 말했다고 전했더니 후미아키는 「토쿠시마 (徳島) 형무소데모에서 『돌아와요 부산항에』 를 리드해준 사람이지」 라며 기억하고 있었다. 「나의 싸움도 후미아키의 무기징역형의 괴로움을 공유한다는 것이 원점이었어」 라고 말했더니 후미아키는 「나의 싸움도 사람의 괴로움을 공유한다는 것이 원점이야」 라고 말했다. 후미아키가 언제나 말하고 있는 싸우는 사람의 자리에 몸을 둔다는 것은 그런 의미인 것이다. 중요한 이야기도 할 수 있었던 충실한 면회였다.